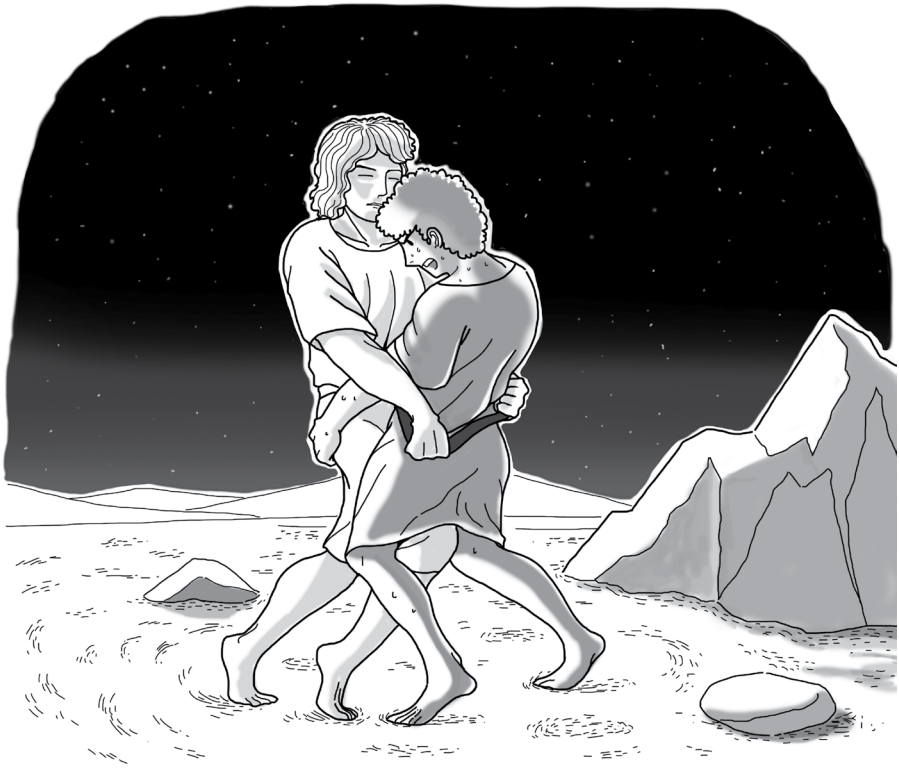
성도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44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 32장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54장 (주님의 시간에)

오늘 배울 말씀

1. 신령한 것을 인간적인 꾀나 방법으로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압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 ]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 ]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창 32:24~28)

말씀을 이해하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것을 간절히 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했지만, 문제는 야곱이 항상 그것을 자신의 꾀와 수단, 방법으로 얻으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의 원한을 샀고, 그 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두 명의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에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할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께 자신을 구해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자기 방법으로 풀어 볼 생각으로 형에게 많은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전히 자기 꾀와 방법을 의지하는 야곱을 볼 때 인간은 참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얍복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을 만나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도록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축복을 간구하게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결코 이전과 같아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내는 쪽으로 이긴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6)

And He said, “Let Me go, for the day breaks.” But he sai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Gn 3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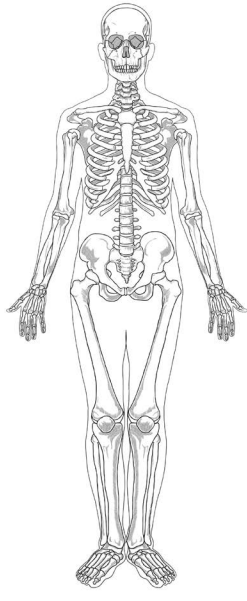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야곱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을 적어보세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왜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창세기 32장 24~32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2 우리 몸의 뼈 중에서 환도뼈의 위치를 찾아 표시하고, 환도뼈의 역할과 중요성을 적어봅시다.



3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듯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굴복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봅시다(렘 45:5, 시 146:3~6, 고후 10:5).

4 얍복나루에서의 씨름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야곱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적어봅시다(잠 3:5~8, 신 22:11).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행 11:26	
월 롬 6:13	
화 롬 6:19	

수

롬 8:14

목

롬 13:14

금

갈 5:24

토

갈 6:17

물의 행성 지구

1996년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화성에 착륙시킨 패스파인더에 지구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동안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지구에서 우연히 화학적 진화를 통해 발생되었다는 가정 속에서 그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고 환경조건이 유사한 화성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생명체와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이 갖고 있는 특징때문입니다.

물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액체상태의 물은 태양열에 의해 증발해 기체가 되지만 구름을 형성하면서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지상에 내려 호수나 바다와 합치게 됩니다. 물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얼어 고체가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액체는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밀도가 높아져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물은 4℃까지는 다른 액체와 같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들지만 4℃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영하에서 물이 얼게 되면 밀도가 액체상태의 물보다 낮아져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병에 물을 넣고 얼리면 터지게 됩니다. 만약 물도 다른 액체처럼 고체가 되면서 밀도가 증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얼기 시작한 호수와 바다에는 얼음들이 가라앉기 시작해 결국 호수와 바다 전체를 얼음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며 그 속의 생물들은 죽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다행히 얼면서 가벼워지기 때문에 수면에 뜨게 되고 두꺼운 얼음층을 형성, 호수나 바다 속을 추운 공기로부터 보호해 수중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화학적 특징 때문에 다른 액체에 비해 온도의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며 기체로 변할 때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몸의 70%가 물로 구성된 생물들은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도 잘 적응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동물들은 땀으로 물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춰 주는가 하면 식물들도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 증발시킴으로써 더위를 식힙니다.

물은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반응에 없어서는 안될 용매로 때로는 직접 반응물로 관여하므로 물의 역할이 없이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지구를 바라보며『공중에 매달린 보석』이라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했습니다. 흰색과 청색, 녹색을 띄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지구, 이는 바로 지구에 있는 물과 생물 때문입니다. 흰색은 구름과 얼음 그리고 눈으로 덮힌 부분이며, 녹색은 물과 더불어 생활하는 식물들이며, 청색은 바다와 호수들에 의한 것입니다. 태평양 하나만도 지구의 1/3을 덮고 있어 물로 충만한 지구에는 생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 외에 어느 행성에도 이렇게 물로 충만한 곳은 없습니다. 이 풍부한 물과 그 속의 생명들의 수많은 기대를 갖고 탐사한 패스파인더를 통해 화성의 삭막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주신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있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담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75억 명이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었고, 아담 한 사람이 쫓겨남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아담을 '첫 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첫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이고, 예수님은 죄 값을 치른 대표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안에 전 인류를 포함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 5:14)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하시는데 무슨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기의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죄를 사했다고 하셨으니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